

■ 괴운(槐雲) 칼럼



4군자(四君子)의 인품과 송백(松栢)의 절조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복야공파 36세)

어느새 갑진년도 저물고 있다. 오늘은 사군자의 인품과 송백의 절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에는 독특한 냄새 있다. 동물도 짐승에 따라 독특한 냄새가 있고, 식물들도 종류에 따라 다른 향기가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냄새가 있다. 체취는 의식주와 환경에 따라 생기는 냄새이고 체취가 아닌 사람됨에서 풍기는 냄새를 인품이라고 한다.

옛날 동양인들은 덕성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인격자를 '군자'라고 칭했다. 그리고 선비들은 철에 피는 꽃 중에서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가리켜 '사군자'라고 부르며 4군자의 묵화를 걸어두고 군자의 도를 닦았다. 20세까지를 인생의 봄으로 간주해서 매화 같은 기상으로, 40세까지를 난과 같은 자세로, 60세까지를 국화 같은 마음으로, 80세까지를 대나무 같은 절개로 삼아 4군자의 향기를 골고루 가지고 살기를 원했다.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꽃말은 "맑은 기상, 인내, 순진무구"이다. 20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이 보통인데 부모는 자손들이 매화같이 맑은 기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다음에 깊은 산골짜기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며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난의 꽃말은 "고결함"이다. 공자도 삼십 이립(而立), 사십 불혹(不惑)이라 하였다. 나이 30살에 모든 기초를 세워 홀로 서고, 40살에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난과 같이 고상하고 결백한 향기를 가질 때이다.

다음으로 국화의 꽃말은 "성실, 정결"이다. 국화는 가을

의 대표적인 꽃으로 모든 꽃들이 지는 계절에 홀로 피어 나서 찬 서리에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향기 또한 그윽해서 어떤 꽃보다 으뜸으로 60세까지는 가져야 할 향기이다. 마지막으로 곧은 줄기에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꽃말은 "변함없는 절개"이다. 후손이나 후배들이 본이 되어야 할 인생의 막다른 어귀에서 뚜렷한 사상이나 철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세태를 보면서 일생을 잘 정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나무의 꽃말을 되새기게 한다.

다음은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조(節操)이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상록수로서 소나무는 통상 잎이 두 개 묶여서 나고,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로 묶여서 난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두 나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하며 "친구의 잘됨이 나의 기쁨으로" 말해주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이란 사자성이 있다. 이는 중국 진(晉)나라 때 육기(陸機)가 쓴 탄서부(歎逝賦)란 시(詩)의 중간쯤에 나온다. "진실로 소나무가 무성해지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지초(芝草)가 불에 타면 혜초(蕙草)가 한탄하네". 이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거스름 없는 깊은 우정을 표현한 막역지우(莫逆之友)임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송백(松栢)과 비슷한 말로 지란(芝蘭)으로 벗들의 맑고 높은 사귀를 지란지교(芝蘭之交)라 한다.

앞으로 우리 권문들도 사군자의 인품과 송백의 절조를 본받아 자연을 벗 삼아 맑은 기상과 고상하며 성실하고 변함없는 절개의 사람 냄새인 고매한 사군자의 인품을 풍기며 친구들과 송백처럼 지란지교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문명의 발전과 한중인문학의 역할

권중달(중앙대 명예교수)

본 기사는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한국측 대표로 기조 강연한 연설문이다. 인문학으로 세계를 품미하고 있는 갈등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면 사정상 몇 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세계는 지금 전쟁(戰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몇 년 동안 계속되며 확장(擴戰)의 기미까지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비록 서구(西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북한의 러시아파병 같은 것은 바로 그 영향이 극동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아직 교전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지구 곳곳에서 전쟁에 대한 대비와 긴장은 고조되며 이것은 대량과포 무기의 발달로 이어져서 인명에 대한 위협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慘禍)는 2차 세계대전만을 예로 든다고 하여도 이 전쟁을 통하여 소련 2,500만, 중국 2,000만을 비롯하여 독일, 폴란드, 일본을 합하면 거의 2,000만 명, 그리고 이탈리아, 미국, 영국까지 합하면 거의 7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만 치른 전쟁임에도 군인의 희생은 100만 명이며 민간인 사망자도 그에 버금간다는 통계로 보아 전쟁의 참혹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서로 다른 세력 간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武器), 무력(武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갈등이 있다고 하여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고 믿을 무기가 없는 한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배후에는 인간의 갈등과 문명의 산물이라 할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부정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본다면 새로운 문명의 등장은 새로운 더 큰 전쟁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따지고 보면 18세기 초에 나타난 산업혁명에서 보인 새로운 문명의 발달이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문명은 더 많은 지배 영역을 갖기 위한 욕망을 가져오고 그것이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의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연장선에서 전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갈등의 증폭이 전쟁의 발발(勃發)로 이어지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인간이 가진 동물성의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생물에 비하여 훨씬 더 좋은 두뇌를 발달시켜왔고, 그 결과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통하여 더 많은 부(富)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의 축적 혹은 그것을 통한 지배력을 신장(伸張)시키려는 행위는 따지고 보면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는 다른 동물의 행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동물적 행태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물적 행태의 발달과 그에 따른 심한 갈등을 목도(目睹)하면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價値)를 찾아내고 이를 강조한 현자(賢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자(賢者)들이 나타난 BC 800년에서 BC 200년 사이의 시기를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축심세기(軸心世紀) 혹은 추축시대(樞軸時代)라고 명명하였습니다.1) 특히 이 시기에 나타난 현자(賢者)로는 인도(印度)의 석가모니(釋迦牟尼, BC623? 563? 480? ~ BC543? 483? 400?), 동아시아의 공자(孔子, BC551~BC479), 그리스의 소크라테스(Socrates, BC470~BC399), 유태(猶太)의 예수(탄생 BC7년~BC2년, 사망 30)를 꼽고 있습니다.

이들의 탄생과 활동은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인류는 의식적으로 약간의 중요한 가치를 제거할 때 인류의 역사는 드디어 생물과 다른 역사를 가진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비로소 인류는 다른 생물과 다르게 인간은 고유한 인간의 가치를 갖는다고 자각(自覺)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스퍼스의 글을 보면서 이들이 나타난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현자(賢者)들이 나타난 배경인 사회에는 심한 갈등과 전쟁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시대의 인도는 상인(商人)계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대량의 재부(財富)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는 상인 과 왕후(王侯)의 대립과 경쟁으로 폭력이 난무하여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심한 고통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타난 그리스에서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 현상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수의 시대는 유대(猶太) 민족이 로마의 혹독한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중국의 공자가 살던 시대도 앞 시기와 다른 춘추(春秋)시대의 혼란이 있었고 이는 그 후로 이어지는 전국(戰國)시대의 전초가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2. 인문학의 탄생과 국가 권력

이러한 문제를 동아시아로 국한하여 설명한다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흔히 전국시대(戰國時代)로 이어지는 춘추시대였고 문명사에서 보면 이 춘추시대는 청동기(靑銅器) 시대가 끝나고 철기(鐵器)가 나타난 시대였습니다. 새로운 철기 문명의 등장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구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자연의 개간과 이용 기술은 획기적으로 늘어났기에 성읍(城邑)국가에서 영토(領土)국가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영토국가의 등장은 국가 간에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욕망의 충돌로 이어지고 사회도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룩된 영토국가의 개념은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더욱 확대되어 지금은 해양(海洋)과 우주공간으로 확대되어 각국 간에 다툴 것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단초를 보면, 주초(周初)에 있었던 70여 개의 봉건제후국(封建諸侯國)을 성읍국가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영토(領土)국가의 등장으로 이른바 전국 7웅(七雄)을 등장시켰고, 진한(秦漢)으로의 통일은 바로 철기 문명의 등장과 영토국가의 성립으로 영토를 둘러싼 각국 간 갈등과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달의 시

태산같은 공덕

/권혁준(權赫俊, 36세)

세상에 뿌리 없는 나무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튼실한 뿌리에서 솟아난
새싹이 어느새 거목이 되고
사방으로 뻗어 난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
그 열매가 바로 자손들이다

새싹이 자라 열매 열어
귀하게 쓰임 받는 온전한 자손나무로 자라기까지

조상나무는
뿌리마다 땅 울려줘어 토대가 되어 주고
갈라진 꺾질 되어 물길도 열어 주고
온몸을 바람에 흔들리며
넓은 세상으로 씨앗도 뿌려 주신다

그러기에 조상의 높은 은덕을
부모의 참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지극정성으로 받들지어다

권혁준은 한국시낭송치유협회 시낭송가이다. 이 작품은 서울시 노원구 시 공모에 채택되어 노원문화회관에 10일간 전시되었다. 권혁준씨는 추밀공파 창화공계 현복군 형(衡)의 후손이다.

서울산악회 제344차 정기산행 안내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44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12월 15일(일) 10시(시간엄수)
- ♣ 집합장소 :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 ♣ 산행지 : 남산공원 및 둘레길
- ♣ 준비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지참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4년 1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

서울지역종친회 제1회 정기총회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어 갑니다.
고문님, 내빈, 임원진, 회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지역종친회 첫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12시
- ♣ 장 소 : 마포구 공덕동 우가촌
- ♣ 교 통 : 전철 경의중앙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공덕역 6번 출구

- ♣ 연락처 :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4년 12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